

“事業計劃을 마치고”

梁 德烈

(大韓石油協會·企劃課)

오는 9월로 創立 두뚝을 맞는 本協會의 금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었다. 전반적인 經濟界의 不況과 정부의 經濟운용시책의 영향을 받아서 例年과는 달리 사업계획이 확정되기까지는 약간의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초 〇억 〇천만원의 予算이 뒷받침된 사업계획안을 작년 12월 중순 臨時總會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했지만, 예산규모를 감축하자는 會員社의 의견에 따라 사업계획은 不得不 축소, 재조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에 따르는 予算도 약 1억원이 감액되어 승인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새해 들어 감독관청에서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는 素地를 사전에 없앤다는 취지로 또 한차례 사업계획과 예산액의 축소조정이 이루어졌다.

아닌게 아니라 本協會는 創立 2년째를 맞아 協會機能을 좀 더 活性化시키고 본체도에 올려 놓고자 몇가지 새로운 的목적인 사업계획을 提示했었다. 예를 들면, 각종 政策자문기구의 설치와 상시활용, 中長期油類需給추정작업, 石油産業 워크샵개최, 오일·로드의 추적취재 및 일반소비자단체를 中心으로 한 精油工場시찰, 弘報 및 情報資料의 신규간행 및 기존간행물의 확대보급, 油일맨 賞제도의 신설, 그리고 텔레크의 설치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不要不急한 신규사업은 제외하고 작년 정도의 수준에서 추진한다는 方針 아래 위의 여러 事業들은 취소되고 예산도 昨年對比 3.8% 증가에 그쳤다.

사실 當初 수립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일단 보류되어 다시 축소조정작업을 할 때에는 혹시 會員社들이 協會를 斜視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이미 제시된 집행실적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따져서 交通費

오면 무슨 명목으로 어떻게 썼느냐, 자료발간비 같은 몇 페이지에 몇부를 발간했느냐, 어느 協會는 저러한데 왜 이렇느냐, 또 個人別 봉급액수는 얼마냐 하는 등등 꼬치꼬치 물어와서 경리장부를 뒤적이며 하나하나 답변하기도 했다.

지난 해에 약 1천 5백억원의 赤字로 추정되는 精油業界의 不況과 고통을 피부로 실감하면서, 또 한편으로 정부의 安定基調시책에 발맞추고, 또 내부적으로 신규사업과 복지문제에 큰 의욕과 기대를 하는 職員들의 慾망을 무마하면서 그 收斂帶를 짜내기에 무척 苦心해야 했다. 이리 부딪치고 저리 부딪치는 「協會로서의 限界」를 지키다 보니 올해는 사업과 업무의 擴張보다는 기존업무에 內實을 기하면서 내핍생활에 진력해야 할 것 같다. 「石油協會報」의 발간을 例로 들어 보자. 協會報는 현재 會員社를 비롯 정부각부처, 國會, 政黨, 公공도서관, 소비자단체, 일반기업체 등에 매달 2천부씩 발간 배포하여 石油政策의 방향과 각종 石油情報 등에 관해 함께 발언하고 듣고 하는 이른바 「國民的 合意의 廣場」을 이루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 協會報는 현재의 70~80페이지 규모에서 지면을 좀더 늘리고 발행부수도 확대하여 石油産業의 對國民弘報를 강화코자 했으나 결국 예산증액이 취소되어 부득이 작년수준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不況의 고통을 나누어 지고, 精油業界의 赤字경영을 나누어 감내해야 하는 분위기이고 보면, 사업계획을 작성한 일선 실무자로서 송구스럽기도 하다.

새해에는 국가경제가 회복되고 精油業界도 적정가동율을 유지하면서 정상이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임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